

시민 생생한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전주시, 12월 20일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 참여 시민 100여명 공개 모집

전주시 '내가 만드는 강한 전주!' 전주의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그리기로 했다.

시는 오는 12월 20일 '2022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펼쳐지

게 되는 시민대토론회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강당에서 '내가 만드는 강한 전주!'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강한 도시, 강한 경제, 강한 문화, 강한 복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분임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공식블로그(blog.naver.com/jonju_city)를

통해 시민대토론회에 참여할 시민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시정 현안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성별과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특히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통해 '적극 참여한 시민 및

우수한 정책을 제안한 시민'에게는 내년 시정에도 참여의 기회가 제공된다.

김형미 전주시 홍보담당관은 "시에 추진 중인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강한 전주의 미래를 함께 그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 참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063-281-5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스마트 씬, 자원봉사가족 힐링 캠프'

전주자본센터, 미안마 유학생·전주권 대학생 대상 실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27일 미안마 유학생과 전주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4회 스마트 씬, 자원봉사가족 힐링 캠프'를 개최했다.

'또래 공감과 문화교류 한바탕' 주제로 미안마 유학생과 전주권 대학생이 함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법과 범죄예방교육, 문화교류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됐다.

또 캠프 운영을 위해 전북스마트센터,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센터, 안산경찰서, 행복드림, 한국이벤트협회 전북지회, 나뉘드림 협동조합, 청바지봉사단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최초로 실시된 범죄 예방 교육은 범죄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범죄 발생시에 대처요령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외국인 유

학생과 전주권 대학생 봉사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나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7년부터 해마다 1~3회에 걸쳐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소원해진 가족 구성원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계를 통해 힐링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황의욱 이사장은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의 공존과 어울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자제하고 범죄 피해 발생신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덕진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28일 실시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불법 소방출동로 주·정차 합동단속'은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덕진구청 불법 주차차 단속 차를 동원해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도로교통법 규정상 단속권한은 시·군으로 이관되어 관할구는 덕진구청 소관이기도 하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주변 도로, 진입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소화전 주변,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화재취약대상 주변, 진입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등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가 즉시 취해졌다. /김영태 기자



'전북 전주형 일자리 탄소산업상생협의회'가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박덕규 한국노총 전주시지부 의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서유석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열렸다.

전주덕진소방서,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주의하세요"

이번 주 많은 비와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난방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했다.

특히 '전기장판, 전기히터, 화목보일러' 등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전기장판과 전기히터는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하고,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물건 등 취급시 주의, 장시간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과열에 주의해야 하고, 연통이 과열되면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가연물과 보일러 사이에 일정 간격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보일러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탄소산업상생협의회로 '전주형일자리' 정비

정부 상생형일자리 지정신청 앞두고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

'전북 전주형 일자리 탄소산업상생협의회'가 28일 탄소 관련 노사민정 등이 참석한 가운데 라한호텔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노사민정 대표들은 상생형일자리 산업부 지정신청을 앞두고 상생협의회 협약·협력기업 구성원 및 상생협약서 변경사항을 보고받았다.

전주형일자리에는 최근 협약기업으로 (주)에스첨단소재, 협력기업으로 루미컴(주), (주)하이엔시, (주)씨비에이치, (주)아이비스 등 총 5개 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전주시 탄소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협약기업인 (주)에스첨단소재는 효성첨단소재(주)의 탄소섬유를 사용하는 수소저장용기 전문업체로,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입주해 317억 원을 투자하고 5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또 루미컴(주), (주)하이엔시, (주)씨비에이치, (주)아이비스 등 4개 기업은 지난 22일 전주형일자리 전주탄소산업사업 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여해 조합사로서의 활동에 돌입했으며, 향후 원부자재 공동구매·판매, 공동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상생협의회를 통해 탄소산업상생협의회 산하에 탄소산업협동

조합분과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내에 2개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근로조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주형일자리 정비했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형 일자리는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의 지역 상생형일자리 선정, 탄소국가산단 조성 완료 등 앞으로 전주형 일자리의 파급효과가 엄청난 만큼 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청년이음전주 '찾아가는 청년센터' 운영

전주시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거점공간인 '청년이음전주'를 이용하도록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전주지역 대학교를 찾아가 청년들에게 청년거점공간인 '청년이음전주'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청년센터'에서는 이동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감점찾기, 퍼스널 컬러, 이미지메이킹, 타로상담' 등 청년들에게 호응도가 높은상담 프로그램이 1:1 방식으로 무료 제공된다.

시는 지난 9월 '청년이음전주' 개소 이후 전주대학교와 기전대학교 등 전주지역 대학들을 찾아가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찾아가는 청년센터'에 169명이 방문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83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80명이 '매우만족'으로 응답했다.

청년이음전주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제4회 찾아가는 청년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상담 등의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이음전주는 '멘토링 연계 맞춤형 청년취업상담반, 청년문화수업(방송댄스, 뮤지컬, 마크라메, 퍼스널 컬러, 일러스트드로잉),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금융, 진로, 심리), 청년동아리 운영, 청년커뮤니티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마다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청년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김영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